

식민지하의 〈조선시가사〉의 형성

- 조운제 『조선시가사강』을 통해 본 식민지 스티그마의 재해석 -

임 경 화*

차례

1. 문제제기
2. 1930년대 조선문학의 자주적 연구의 지평
3. 찬연한 자국문학의 역사를 가진 「문명국」 일본
4. 『사강』이 추구한 이념
5. 결론과 과제를 전망하며

1. 문제제기

이 광수(李光洙 : 1892-?)가 「朝鮮文學」을, 한문으로 된 문학을 제외한 「朝鮮文」으로 쓴 문학으로 정의하고, 「朝鮮文」문학의 역사만을 「朝鮮文學史」로 단정했을 때, 「世宗 때에 正音이 생기고, 참 意味의 朝鮮文學이 發達할 條件도 具備하였건만, 그 주릴할 漢學에 鳩毒이 되어,」 「朝鮮의 文學은 朝鮮의 民族魂과 함께 말라버리고 말았다」¹⁾고 지나치게 과장된 형태로 「朝鮮의 民族魂」의 표상으로 여겨진 「朝鮮文學」의 미발달—정확히 말하면 서양 선진국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문학에 대한 열등성 내지는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의 「국문학」 발달의 역사에 대한 후진성을 자학하기에 이른 것은 당연하다.²⁾

그런데, 이 광수가 느꼈던 「국문고전」의 빈곤에 대한 자학이라는 감정은 지극히 근대적 산물이기도 하다. 근대이전의 한반도의 주민들이 이와 동질의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왕조를 통틀어 일본에 대한 외교의 원칙을 교린책(交隣策)으로 일관하면서, 조

* 고려대 강사

선이야말로 중화문명의 정통을 있고 있다는 소위 소중화(小中華)사상을 발판으로 한 문화적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 한 것만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서양이나 일본에 대한 문화적 열등의식을 피력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우월의식이 콤플렉스로 반전하는 절단면이, 조선에서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자기동일성을 구축해 가려는 역사적 요구가 고개를 드는 지점이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19세기말부터 한문에 대신하는 조선문의 제정과 그를 바탕으로 한 근대적인 조선문학의 출범을 서둘러 준비해 가는 와중에 식민지체제로 편입되고 만다.

한편, 淸이나 조선에 한발 앞서 서구콤플렉스를 경험한 일본은 서구,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낭만주의에 기초한 국민문학을 모델로, 국문학의 고유성의 추구를 문학연구의 기초로 삼아, 그 극복을 도모했다. 따라서 근대일본의 국문학 아카데미즘은 서구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고전문학에 고유한 민족성이 보다 명확히 돌출된다고 보고 고전위주로 그 학적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인 경향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를 주도한 일본의 「국문학」계는, 그 내실을 바꿔 가면서도 일관해서 「국문고전」의 전통을 강조했고, 「국문학」의 고유성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 왔다. 그리고 이 같은 일본에 있어서의 서구 열강에 대한 문화적 열등의식의 극복방법은, 식민지 하에 준비되어 해방 후 성립한 한국의 「국문학」계에 그대로 계승되어 갔다. 한국의 「국문학사」의 확립이야말로 식민지 종주국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길이라는 사고는, 해방 후의 「국문학」 연구자들의 사명감의 원천이 되었다.

하지만, 자국문학의 체계적 규명이 가장 정통성 있는 연구로 위세를 떨치는 한에 있어서는, 자국문학의 틀을 벗어난 연구-비교연구 내지는 지역연구 등은 자연히 「국문」문학의 고유성을 우회적으로 방증 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만족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국문고전」의 자료가 부족한 한국의 경우는 비교연구보다는 대조연구라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는 각각의 문학의 공통점을 대조하여 그로부터 문학의 보편성을 도출해 내는 연구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국문학 연구로 수렴되지 않는 대조연구가 비교연구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 세를 확장하는 일은 당분간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며, 한국의 문학 연구자들의 국경을 넘으려는 적극적인 시도 또한 「국문고전」에 대한 절망의 양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존속시켜 가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식민지 종주국에 대한 콤플렉스의 극복방법으로 추구되었던 「국문학」 내지 「국문학사」의 체계는 다시금 한국의 문학 연구자들의 자학을 낳았다는 역설을 배태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

러한 감정은 실은 이 광수를 포함한 식민지하의 지식인들이 느꼈던 열등의식과 저변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광수가 갈구했던 자국문학의 체계 자체는, 「자국」이나 「문학」의 틀을 벗어나 인류보편의 원리를 추구했던 근대이전의 수많은 지적 영위의 사장 내지 왜곡을 피할 수 없었다. 는 한계점이 극명히 말해주듯, 실은 근대국민(민족)국가의 과제인 국민(민족) 통합을 위한 전통으로 「발견」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근대이전의 문화상태에 대한 왜곡을 필연적으로 내포한 것이라는 최근의 논의³⁾는 한때의 유행으로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자국문학에 대한 상대화와 그 극복의 적극적인 모색 속에는, 한국의 「국문학」의 학적 체계가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자국문학 미발달이라는 모순 된 감정에도 과학적인 매스를 가하는 작업이 요망되며, 이는 「국문학」 체계의 진정한 해체 구축을 유도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러한 작업의 기초로서, 근대이후의 조선문학계에 있어서의 열등의식 형성의 역사적 배경을 밝히고, 한국의 「국문학」 아카데미즘의 기초를 확립한 조운제(趙潤濟 : 1904-1976)의 최초의 저작 『조선시가사강(朝鮮詩歌史綱)』(1937년, 동광당(東光堂)서점. 이하 『사강』으로 약기함)의 구축과정을, 식민지하의 문화적 열등의식과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든 조선의 문학을 근대적인 학문체계로 끌어 올리려는 몸부림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하고자 한다.

2. 1930년대 조선문학의 자주적 연구의 지평

먼저, 조운제의 「국문학사」의 달성이 왜 시가사의 확립에서 출발했는가를 『사강』의 「緒言」에서 들어보자.

[조선의 시가는 문헌이 인멸하고 충분히 발달하지 못 했지만,] 詩歌는 우리 文學의 大部分이라, 文獻이 不備하고 所傳이 零星한데다가 全然 作者不明의 것은 憚다 하더라도, 그 래도 歷代를 縱貫하는 것이 얼마끔 있어, 可히 歷代의 詩歌의 生活을 불만한 것이 있으니, 이것이 말하자면 詩歌史의 資料가 되는 것이고, 또 그中에는 제절로 上下를 貫通하는 詩歌의 生命이 있어야 할 것이니, 여기서 나의 詩歌史는 얼마끔 可能할듯 하다.(p.3)

조선 시가의 미발달과 자료부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조선문학의 대부분이라는 인식, 즉 조 윤제에게 있어서 시가사의 서술이란 문학사의 추구와 거의 등가의 의미를 가질 정도로 절대적이라는 사고와, 「歷代를 縱貫」하고 「上下를 貫通」하는 생명력 있는 시가사의 수립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그의 시가사 서술의 내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또한 「時調字數考」(「新興」 4, 1930년 11월)를 시작으로 정력적으로 진행된 그의 시가연구의 하나의 도달점이 시가사의 서술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가 시가연구에 매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당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선어학 조선문학 전공 제2강의 담당교수(1926년 학과 개설시 임관되어 1933년에 도쿄제국대학 교수로 전임. 이후 겸임교수로 집중강의 행함)로 조선어학을 강의했던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 1882-1944)의 향가연구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그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조윤제가 동 대학 조선어학 조선문학 전공의 제1회 졸업생(1924년 4월 예과 입학, 1929년 3월 졸업)으로 스승인 오구라에게서 근대적인 학문을 사사받았다는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편, 오구라의 향가연구는 비단 제자인 조윤제를 시가연구의 길로 이끈 정도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오구라는 향가에 대한 전면적인 해독작업에 착수하여 1929년 3월 『향가 및 이두 연구(鄉歌及び吏讀の研究)』(「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紀要第一」)를 간행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때까지 불과 2, 3수의 해독이 주로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간헐적으로 시도되었던 향가연구사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획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사적 의의는 오구라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양주동(梁柱東 : 1903-1977)의 다음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처용가의 일부 내용은 악학궤범에 인용되어 있지만, 그 외의 해독은①고래로 조선의 어느 학자도 시도한 적이 없었다. 향가 25수에 걸쳐 어학적 입장에서 정밀한 체계적 연구를 더하여 해독한 것은, 실로 오구라 신페이박사의 역저 「향가 및 이두의 연구」가 그 효시다. [/] 생각건대 ②박사의 저서는 당시 파천황(破天荒)의 연구로, 획기적인 작업이었다. [……/] 나는 박사의 저서를 읽고 비로소 향가의 내용의 대강을 알게 되어 향가라는 것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절실히 향가연구의 필요를 느껴 다소의 연구를 더해 왔다.⁴⁾

오구라의 논저를 통해 향가에 흥미를 느끼고 그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양주동의 연구동기가 기술되어 있는 위 글에서 밑줄②부분을 중심으로 그러한 찬사가 보인다. 후

년, 이 논문에 대해 오구라로부터 「조선인으로 향가의 학문적 해석을 시도한 최초의 문헌」⁵⁾으로 평가받은 양주동이 오구라의 연구에 촉발되어 향가해독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와세다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1918년), 문예비평가로서의 길을 걸었던 양주동이 향가연구자로 전신한 계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위 인용문에서 읽을 수 있다. 즉, 향가해독이 고래로 조선인 학자에 의해 시도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유감(밑줄①)이 양주동의 조선인 학자로서의 자각과 사명감을 이끌어 냈다는 것은 이어지는 다음의 문장에서 보다 명확히 엿보인다.

원래 이런 종류의 연구는, 조선의 학자에 의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의무와 많은 편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박사의 저서에 관해 한 줄의 비평조차도 나타나지 않은 것에 다소 감개를 느꼈기 때문이다.

즉, 향가연구야말로 조선인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사명감과 조선어를 모어(母語)로 하는 조선인이야말로 향가해독에 유리하다는 일종의 학문적인 당위가 양주동의 향가연구를 뒷받침한 계기의 또 다른 측면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구라 자신도 향가연구에 몰두하게 된 동기의 하나로 조선인 학자들의 향가에 대한 무관심을 들고 있다. 오구라는 위 논문에서 향가연구의 주된 동기는 언어학자로서 조선어를 학문적으로 규정하는데 있다고 기술한다. 즉, 오구라는 조선어연구에 있어서 타 언어와의 위치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조선어의 역사적 연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향가의 해독은 어디까지나 조선어의 역사적 변천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한 후, 이러한 핵심에서 벗어난 연구를 굳이 발표하기에 이른 경위를 기술하면서 당시 조선학계의 열악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향가가 「삼국유사」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예부터 세인이 주지하는 바로, 일찍이 연구자의 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학도는 웬지 최근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이것을 방치하고, 이것의 해석에 뜻을 두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날(1936년 : 인용자)이야 경성에 제국대학이 설립되어 학문의 진보도 옛날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나의 연구가 발표되었던 당시(1929년)만해도 어떠한 조선인 학자에게 이것을 질문해도 아무런 시사적인

설명을 해 주는 자가 없었다.(p.80)⁶⁾

이어서, 그는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비자각적인 연구자들에게 자신의 지적 축적을 전달, 공유하려는 「학문적 양심」이 연구 성과를 정리하게 된 계기중 하나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양주동이 느꼈던 것과 동일한 조선인 학자로서의 자각과 사명감을 오구라 자신이 조선인 학도들에게 촉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양주동도 같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고,

듣자니 박사는 그 문하의 조선학생에게 「향가연구 같은 것은 원래 자네들의 일이다. 내 연구가 금후 자네들의 손으로 많이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p.45)

오구라 자신도 위 논문에서 같은 취지의 문장을 남기고 있다.

나는 항상 학생들을 향해 「향가연구 같은 것은 원래 자네들의 몫이다」라는 의미의 말을 고백하고 있다. 요컨대 향가연구는 조선사람 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과제로, 따라서 이 해석에 특권을 부여받은 조선학도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인 연구자들의 향가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양주동과 오구라의 공통의 문제의식은, 조선인 학도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오구라의 기대에 양주동이 부응하는 형태로 공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은 오구라에게 조선시가연구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각성 받은 「조선학도(朝鮮學徒)」중 한명이 바로 조운제였던 것이다. 그것은 후일 조운제 스스로가 쓴 다음 글에서 밝히는 바이기도 하다.

恩師 小倉進平氏가 朝鮮語學을 研究하여 文學博士의 學位를 얻고, 그 學位論文 〈鄉歌及吏讀의 研究〉가 公刊이 되었으며, 그것이 또 問題가 되어 小倉博士와 土田杏村氏 사이에 鄉歌의 形式에 대하여 긴 論爭이 있었다. [……] 그때 나는 小倉博士와 한 研究室에 있으면서 ①그들 論爭에 대하여 無限한 興味를 가지고 내다보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刺戟도 받아, 우리나라 詩歌의 研究는 내가 하여야 하겠다는 決心을 하게 되었다. 또 ②小倉博士가 적잖이 나를 激勵하여 朝鮮의 詩歌에 대하여는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여 주었다.⁷⁾

그런데, 이 회고문의 밑줄 ②를 자세히 보면, 오구라가 조윤제에게 기대했던 것은, 향가 연구가 아니라, 「朝鮮의 詩歌」 연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양주동에 의한 향가해독이나 최남선 등에 의해 1926년 이후에 활발히 전개되었던 시조연구등과 같은 개별연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의미의 조선의 시가연구였던 것이다. 거기에는 이미 조선시가사에 대한 지향이 있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밑줄 ①부분에서 조윤제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이끌어 냈던 또 다른 계기로 들고 있는 오구라와 쓰치다 교손(土田杏村 : 1891-1934)의 향가형식에 관한 논쟁의 의의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더욱 명확해 진다.

쓰치다 교손은 일본에서 1920년대 전반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던 와카(和歌) 기원에 관한 논의의 흐름 타고 향가와와의 비교연구를 시도하여, 와카형식이 향가의 영향 하에 성립했다고 논한 저서인 『상대의 가요(上代の歌謠)』(제일서방(第一書房), 1928년 6월)를 상재한 인물로, 오구라와 향가의 형식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다⁸⁾. 논쟁의 핵심은, 향가의 어학적 해석을 우선하는 오구라의 연구에 대해, 쓰치다가 음수율을 중심으로 한 형식규명이 선결된 후에 그 형식에 적합하게 석독(釋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한 것에 있다. 논쟁의 과정은 조선어에 대한 풍부한 어학적 지식을 유일한 방법론으로 하는 오구라의 향가해석에 있어서 그 자신이 조선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부각시키는 것이기도 했지만, 조선어를 전혀 모르는 쓰치다의 형식론도 그 대안은 될 수 없었다⁹⁾. 쓰치다는 현존 민요, 용비어천가, 시조 등의 지수계산법을 통해 향가의 형식적 특징을 추단해 내지만, 그의 조선어에 대한 지식의 결여와 그로 인해 안이하게 일본어나 일본시가에 결부시키는 태도는 쓰치다가 제시한 다소 불철저한 통계수치에 대한 오구라의 신뢰도를 더욱더 실추시키는 것으로 작용했다. 이에, 오구라는 「향가의 형식 문제는 그 발생부터 오늘 날의 각종 가요 형식의 발달에 이르기 까지 대단히 복잡한 변천을 거친 것으로, 역사적으로 관찰해서 충분히 상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¹⁰⁾고 하여, 조선의 시가발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요망하기에 이른다. 조선어를 모어로 하는 조윤제가 조선 시가의 체계를 세우는 것—그것이야말로 조윤제가 위 논쟁을 통해 얻은 비전이었고, 오구라가 자신의 방법론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윤제에게 걸었던 기대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조윤제나 전계의 양주동이 오구라 등과 접하는 자리에 1930년대의 조선인에 의한 자주적인 「조선문학」 연구의 지평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실은 1920년대 초반에 조선인에 의한 자주적인 조선연구를

「조선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제창한 최남선(崔南善 : 1890-1957)의 담론 속에도¹¹⁾, 「조선학」의 기운의 고조를 타고 1934년 5월에 결성된 진단학회의 창립의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단학회의 기관지인 「진단학보」 제1집 회보 「震檀學會創立」을 참조하면, 근래 조선문화 연구의 기운이 고조되었지만, 그러한 경향이 조선인 이외의 인사들에게 더 많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 조선인인 우리들은 엄중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한 후, 조선인 학자들에게 사명감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비록 우리의 힘이 貧弱하고 研究가 拙劣할지라도, 自奮自進하여 또 서로 協力하여, 朝鮮文化를 開拓 發展 向上시키지 않으면 안될 義務와 使命을 가진것이다. 어느 社會의 文化든지 그것을 眞實 且 正確히 檢討 認識하고, 또 이를 向上發展함에는 그 社會에 生을 受하고, 그 風俗 習慣中에서 자라나고, 그 言語를 말하는 社會의 사람의 努力과 誠熱에 期待함이 더 큰 까닭이다.¹²⁾

조선인이 조선문화 연구의 중심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자기반성을 계기로 표출되는 자문화에 대한 자각이 사명감과 당위성으로 이어지는 인식을 동시대의 담론공간에서 양주동이나 조운제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특히, 조운제는 진단학회의 발기인이기도 하다. 즉, 조운제에 대한 오구라의 영향은, 거시적인 맥락에서는, 타자(他者)에 의한 「조선문화」의 연구에 촉발된 「조선인」 연구자의 자문화 연구에 대한 30년대의 자각적, 체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가령 양주동의 업적을 조선인의 자주적인 향가연구의 시발로, 혹은 조운제의 그것에 대해 「민족문화사상 획기적인 사업」(손진태(孫晉泰 : 1900-?)에 의한 『사강』의 「발(跋)」) 내지 최근 강해수(姜海守)씨에 의해 「『민족문학』적 담론의 〈전사적〉 텍스트(『民族文學』的言說の〈前史的〉テキスト)」¹³⁾로 의미를 부여할 경우, 자국문학에 대한 각성을 조선인 학도들에게 촉구한 오구라와 같은 존재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3. 찬연한 자국문학의 역사를 가진 「문명국」 일본

한데, 양주동이나 조운제 등이 공유했던 조선문학 연구자로서의 주체성의 자각에는, 고

래의 조선인 학자들이 자국문학에 대한 연구에 소홀했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깊어 뿌리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평가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라는 이름 하에 국민국가체제가 강력히 추진되면서, 공식적인 「자국문학」(국민의 시가/문학)의 창출과, 그 근거를 역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통의 창출로서의 「자국문학사」의 구축이라는 통시적인 작업이 동시에 지향되는 갑작스러운 가치의 전환¹⁴⁾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근대화의 지연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식민지체제에 강제적으로 편입된 조선은, 종주국 일본으로부터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의 지표를 확정 받는데(본고의 술어로 다시 쓰자면 타자로부터의 스티그마의 부여),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근대화된 서양에 대한 열등감과 시급한 근대화의 달성에 국운을 걸고 총력을 기울였던 일본은, 명치기에 「자국문학/문학사」의 확립이 국민의 통합을 위한 문화장치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었다¹⁵⁾.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서양문학사의 소양을 쌓은 지식인들이 자국문학의 확립을 문명의 지표로 여기는 발전주의적 사관을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문학은 국민의 꽃이요, 즉 국민정신이 환발(煥發)하여 광채를 이룩한 것이니, 어떠한 문명국도, 만약 우리들이 과연 문명국이라 칭할 만 하다면 찬연한 일종의 문학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없다. 만약 이와 같은 문학을 가지지 않는다면, 설령 아무리 타국을 침략할 기량이 있는 나라라고 해도, 아직 문명국이라 칭하기에는 족하지 않다.¹⁶⁾

독일유학 경험자인 이노우에 데츠지로(井上哲次郎 : 1855~1944)는 명치국가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국체(國體)론자일 뿐 아니라, 『新體詩抄』(丸屋善七, 1882년)의 저자 중 한 명으로, 국민 대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국시(國詩)의 수립을 목표로 신체시를 창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위의 문장은 국민정신의 정화로서의 「국민문학」 건설을 목표로 조직된 「帝國文學會」의 기관지인 「帝國文學」의 창간호 권두 논문이다. 이노우에는 동 논문에서 과거의 일본문학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서양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 장래의 「국민문학」을 창조하여, 문명국의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의 이러한 논지는 이후의 회원들의 운동의 지침이 되는 것이었다¹⁷⁾. 자국문학의 확립이 문명국을 특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을 밑줄부분은 명시하고 있다.

미찬가지로 이러한 신념은 서양의 문학사 편찬법을 도입하여 성립한, 일본문학사의 효시라고 하는 미카미 산지(三上參次), 다카즈 스키사부로(高津鐵三郎) 『일본문학사(日本

文學史』(금향당(金港堂), 1890년 10월)의 편찬의도에도 현저히 나타난다. 그 「總論」에는 「문학사란, 바로 문명사 그 자체다」라는 서양의 이념에 입각하여, 문학사를 「문학의 기원 발달을 서술함과 더불어, 가능한 한 그 안에 잠재한 원기(元氣)가 활동한 흔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국어로 된 과거의 문학작품을 역사상으로 나열하여 그 발달을 극명하게 서술하는 문학사의 확립 또한 문명개화의 중요성을 통감한 명치의 지식인들에게는 조속히 달성되어야 하는 국가적인 과제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그것(서양의 문학서 : 인용자)에 뒤지지 않는 문학서, 또한 그것(서양의 문학사)을 능가하는 문학사를 만들려는 강개(慷慨)의 기운이 홀연히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었다.¹⁸⁾

서양에 뒤지지 않는 문명발달사의 정화로서의 문학사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이 성과물을 낳고 일정한 달성감으로 연결되는 곳에, 식민지하의 종주국 일본이 조선의 「자국문학」에 대한 학적수준을 「정체」 내지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배태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성제대 조선어문학전공 제1강의 담당교수로 오구라의 동료이자 대구고등보통학교시절부터 조윤제와 사제관계에 있던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 : 1878~1967)¹⁹⁾는 「조선문학연구-조선의 소설-(朝鮮文學研究-朝鮮の小説-)」에서, 조선문학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일본 및 서양의 영향을 받기 전(식민지시대 이전)의 조선의 민족성을 「문화적 고착성」과 중국에 대한 「문화적 종속성(또는 「독자성의 결여」)」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민족성을 특징짓는 예 중 하나로 「朝鮮國文朝鮮國詩」가 성립하지 못하고 한문으로 조선문학을 삼은 것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다카하시는 이러한 자신의 논지에 모순 되는 한글시가인 시조(「雅謠」)에 대해서는 한시의 붕괴된 형태로, 한글소설은 문학적 가치가 극히 낮은 것으로 무시해 버린다. 그가 이러한 다소의 논리의 모순을 은폐하면서까지 식민지이전의 조선의 문화적 상황을 「정체」나 「독자성의 결여」로 이미 지화하려 한 것은 한일합방이 문명국 일본의 지도 하에 조선에 문명화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사상 및 신앙, 풍속, 관습에서 이처럼 강한 고착성을 가진 자들이 조선인이다. 만일 이 나라에 일본을 통해 이토록 강력히 현대문명이 수입되는 일이 없었다면, 허구한 날 주자

학을 신봉하며 흰옷에 상투 들고, 반도의 천지에 수구세력이 득세하는 국가사회를 계속하여, 마침내 세계의 경이를 이루었을 것이다.²⁰⁾

조선에 대한 문명의 이식이라는 대의명분은 식민지시대를 통틀어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끊임없이 설파되었다²¹⁾. 이 논문이 『일본문학강좌(日本文學講座)』라는 시리즈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일본문학의 하위개념으로 조선문학/문학사를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다카하시가 일본문학의 범주에 편입되기 이전의 조선문학에 주목한 이유는, 정체성·종속성으로 대표되는 소위 식민사관을 문학의 측면에서 강조하여, 그 후진성·열등성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일본문학이 일본민족의 고유한 발달·변천을 현창하는 것으로 강조된 것과 정반대의 가치부여인 것이다.

조운제 또한 대학 졸업 이후 시가연구로 급진전하기 전에는 소설연구를 중심테마로 하여 위의 타카하시 논문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가진 『朝鮮小説の研究』(1929년 3월)를 경성제대의 졸업논문으로 제출한다. 조선 소설의 미발달에 대한 강조나 소설의 분류안에 보이는 내용의 중첩 정도²²⁾로 미루어, 조운제의 졸업논문은 그의 스승 다카하시의 위 논문의 연장선상에서 행해진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조선문학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문화적 헤게모니를 쥔 일본의 지식인들에 의해 담론공간에서 주도되어 지배력을 발휘해 가게 되고, 이러한 식민지 지배를 긍정하는 이데올로기의 직접적인 세례를 받고 그 극복을 모색하는 하나의 학문적 움직임으로 과거의 조선의 시가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한 것이 조운제의 『사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오구라의 경우는, 조선의 과거의 「국문」 자료에 대한 일방적인 무시를 넘어서 향가의 연구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타카하시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오구라는, 전제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어디까지나 과거의 조선어의 역사를 탐구하여 조선어의 계통을 밝히는 데에 자신의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야스다 도시아키(安田敏朗)씨가 오구라의 조선어 연구에 대한 최근의 성과에서, 오구라가 조선어에 대한 학문적·과학적 연구를 강조하는 것이 근대국민국가가 요구하는 「국어」의 구축이라는 시대상황에서 볼 때, 결코 가치중립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지적한 것은 중요하다. 즉, 근대일본에 있어서의 「국어」란, 표준어의 형태로 국민국가의 구성원에게 공식적인 일체감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국어」의 역사를 「전통」 내지 「민족정신」의 이름 하에 체계화하는 것에 의해 통

시적인 일체감을 양성하는 요소로 그 완성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오구라의 조선어 연구는 과거의 역사를 밝히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고, 조선어의 현재와 장래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어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그 속에서 「전통」 내지 「민족정신」 등의 이념을 읽어내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²³⁾ 조운제를 조선의 시가 연구로 이끈 의도 또한 조선 시가사의 체계적인 확립을 통한 민족 전통의 고취를 건인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인 학도의 각성과 관련한 오구라의 진정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每日新報』에서 1940년 새해를 기념하여 기획한 「内地에서朝鮮에—各界名士の希望—」이라는 특집에 발표된 「學生은 謙虛하라—人格修養에힘을쓸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

또學問을하는이중에 朝鮮에는 朝鮮獨自의 文學藝術이었다. 이에 關한 研究는 朝鮮 사람에게만일켜지면 그만이라고생각하는이가잇슬런지도몰으나 그래서는안된다. 朝鮮의 學問은 日本의 學問이요 또 世界의 學問이다. 훌륭한 研究는 内地學者를 相對로하고 内地의 研究機關을 利用하여 堂堂히 發表하고 學界의 批評에 귀를기우려야할것이다. 그리하라면 될수잇는대로 國語로 意見을 發表해야할것이다.²⁴⁾

오구라가 조선인 연구자들에게 조선의 문학예술에 관한 연구 성과를 굳이 일본어 [國語] 로 발표하도록 촉구한 이유는, 「朝鮮의學問은 日本의學問이요 또 世界의學問이다」라는 말에 극명히 나타난다. 즉, 조선의 아카데미즘이 일본의 그것에 종속되어야만 세계의 학문적 보편성에 연결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의 연구 또한 일본의 아카데미즘의 일부로서 행해졌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위의 기사가 쓰인 것은 조운제가 조선어로 『사강』을 완성한 해인 1937년 이후의 일이므로, 비판의 화살은 조운제에게도 미치는 것이었으리라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역으로 조운제의 <조선 시가사>의 체계화가, 시가연구에 투신한 그 자신의 계기와는 상관없이 일본의 아카데미즘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선의 아카데미즘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한 내부 완결적인 작업이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오구라가 조운제에게 기대했던 것—항가의 형식론을 위한 조선 시가 발달사의 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선의 시가의 전통 내지 정신사의 구축이라는 이념을 읽어내는 것임에 틀림없다.

4. 『사강』이 추구한 이념

그러면 조운제가 시가사를 집필한 목적을 『사강』의 「자서(自序)」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자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自己文學의 惠澤을 넉넉히 입지못하고 또 그의研究가 일즉부터 열리지못한 朝鮮에 있어서는 나의 이와같은 研究는 아직 危險한일이어서 나는 이것을 起稿하면서 몇번이나躊躇하고 다시 後日을 기다릴가도 하였었다. 그러나 누구의 손으로라도 한번은 冒險하지 않으면 아니될것이고 [……]

서두에서부터 강조되는 자국문학 발달의 미약함과 그 연구의 열악함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오구라, 다카하시 등의 일본인 학자들뿐만 아니라 1920년대 이후의 자주적인 「조선학」 연구의 제창자들이 공유했던 문제였다. 다카하시는 이러한 문제를 과거의 조선문학의 열등성과 관련시켜 지적하는 데에 머물렀다는 점에 비해, 오구라는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향가연구에 뛰어들었는데, 그 동기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아카데미즘의 일부로서의 학문적인 추구에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운제에게 있어서 조선 시가사의 기술은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여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라는 필연성으로 존재했다. 그 이유를 이어지는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近代라하면 文化的水準이 全然 뒤바뀌어 文學의 革命이 일어나고 同時에 自國文學을 絶叫한 時代이었으나, 이러한 卒變之時에는 미처 시드른 過去의 文學을 繼承하여 培養할사이도 없고 爲先 高度한 外國文學을 引輸하여 模倣하지 않을 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그러는동안에 自然히 古代文學과 現代文學과의 사이에는 險隙이 생기고 連絡이 끊어져, 다시 새로운 어떠한 工作이 여기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니 되었으니, 이것이 곧 古代文學의 研究라는 形式으로 나타나게 되었거니와, 우리는 늘 將來의 힘찬建設은 반드시 그過去의 歴史를 背景으로 하지않으면 아니될것을 안다. 「……」 不徹底한 小論 著가 敢히 그러한 重大한 使命을 이룰수 있을가 없을가.

조운제가 말하는 「重大한 使命」이란, 고대문학을 계승·배양하여 외국문학의 모방에 급급한 현대문학과 연결시켜 힘찬 장래 문학의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국

의 「고유한 문학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외래의 선진 문학을 융화시켜 찬연한 장래의 문학을 창조하지는 위의 이노우에 등의 논의에 비교해 보면, 식민지하의 조선의 경우는 통시적인 자국문학사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을 통해 소개된 외국문학의 영향 하에 근대문학이 「파행적으로」 성립해 버린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야말로 시가사의 확립을 감행해야 했던 조운제의 중대한 사명감의 핵심인 것이다.

제2절 모두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그는 시가사를 가능케 하는 요소로서 「歷代를 縱貫하」고 「上下를 貫通하는」 시가의 존재를 들고 있다. 전자에 대한 사명감은 불연속적으로 현존하는 한글 시가 및 한글을 표기하려는 의식이 투영된 향가 등의 장르를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는 의지로 표출된다. 그것은 시조를 향가의 발전된 형태로 파악하는 곳에 극명히 나타난다. 즉, 현존하는 향가에는 예가 없는 6구체를 상정하여 시조의 형식인 3장6구의 모태로 보고, 6구체의 실 예를 조선 초기에 채록된 백제의 노래라 전해지는 「정읍사(井邑詞: 『악학궤범』 수록가)」에서 찾는다(「古代 鄉歌時代に 별서 時調 同様の 六句休歌가 있었다는 것은 疑心할수없는 것이다」 p.119). 그 근거를 시가의 형식은 돌발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대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문학사적 보편성에서 찾지만, 그것을 불연속적으로 잔존하는 시가를 시대를 초월하여 있는 원리로 삼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로 이설의 가능성을 기각시키지 않는 한 가설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운제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강』의 끝머리에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大抵 朝鮮의 詩歌는 過去 千數百年來 或은 數千年來 四四調가 基調가 되어서 形式的 發達을 하여 왔었다. 이것은 적어도 朝鮮詩歌形式의 理念인 以上 過去뿐만 아니라 또 將來에도 亦是 該理念에 올라서 發展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될 運命에 있다 보아야 하겠으나,(p.452)

조운제에게 있어서 조선시가형식의 이념인 「4·4조」의 발견은, 과거와 장래를 연결하여 생명력을 불어넣는 결정적인 핵심의 도출이었던 것이다. 「4·4조」가 전형적으로 나타난 시형으로 조운제가 들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에 발달한 가사(歌辭)인데, 거기에서 「千數百年來 或은 數千年來」의 기초를 읽어내는 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감이 있으나, 이전의 시가연구에서도 「우리들의 詩歌를 通覽하건대 一句의 길이는 大體로 八音을 중심으로 前後에 動搖하는데, 이 八音의 一句는 그 音節 上 늘 四四調에 分離하는 傾向을

가지고 있」다든지, 「民謠는 大概는 八八調」라는 등의 견해를 피력해 온 일관성 있는 주장이다. 『사강』은 이러한 기존의 주장을 귀납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기존에 대체적인 경향으로 파악되었던 「4·4조」「8·8조」가 조선 시가의 운명을 짊어진 이념으로 승격되고, 그 바람에 다양하게 존재했던 음수율에 대해서는 파격 내지 신시의 요구에 의한 반동 운동의 발흥으로 파악되기에 이르렀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언급하지만, 본고는 『사강』의 비학문성을 비판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고의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생기는 의문은, 오히려 조운제가 왜 이러한 무리한 서술을 감행하면서까지 시가의 역사적 종관성을 시가사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파악해야만 했는가하는 것이다. 시가자료의 현존 상태로는, “조선에서는 시대와 계층에 따라 다양한 시가 형식이 존재했다”고 하는 시가사의 구축도 가능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아마도 일본의 와카시에 대한 과도한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일본에서 7세기 중엽에 성립한 음수율정형의 시가인 와카는 귀족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근대초기까지 명맥을 유지하지만, 명치(明治)가 되면, 서구의 시나 문학사조를 범형으로 하는 근대적 시가 [國詩] 로서의 신체시(新體詩) 창출의 움직임 속에서, 와카의 부정론이 점차 주류를 형성해갔다. 한편,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국학의 소양을 갖춘 와카창작층에서도, 구형의 탈피를 피하며 와카개량운동을 전개하였고, 기존의 가단의 틀을 벗어난 혁신세력에 의한 와카(단가)혁신운동도 미디어의 도움을 받으면서 눈부신 성과를 낳는다. 와카는 신체시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로 전국에 퍼지게 되어 와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잠정적으로 불식시켰다. 그 결과 일본문학의 근저에는 일관해서 와카가 있었다는 견해가 부상하여, 와카의 영속성은 이후 국제론과 결부되어 간다. 아래 인용문은 와카의 영속성에 관련된 대표적인 담론이다.

우리나라 운문의 운율은 5음, 7음의 2구교착연용이라는 단일 규칙이 그것이다. 만엽집(萬葉集)이하의 장가(長歌), 단가(短歌), 선두가(旋頭歌), 중세의 이마요가(今樣歌) 등, 더 내려와서 후세의 속요, 정가(情歌) 등을 볼 때 하나도 이 규칙에 벗어나는 것이 없다.²⁵⁾

와카는 상고로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어디까지 이어질까요.²⁶⁾

와카야말로,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국민문학의 정수이고, 우리 국민의 과거의 문학적 산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²⁷⁾

조운제가 제시한 음수율의 일관성은, 와카의 전통 내지 영속성을 자명한 것으로 기술하는 일본의 시가사에 대응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가사 성립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시가의 역사적 종관성에 관한 그의 집착은 일본 시가사에 비견하는 것으로서의 조선 시가사를 기술하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생물진화의 계통수를 방불케 하는 시가사의 일원적 도식은 실은, 「詩歌의 原始形」(「朝鮮語文」 7, 1933년. 이하 「원시형」으로 약기함)에서 거의 완성을 보았다. 즉, 동요, 민요의 세계를 모태로 하는 조선 시가의 원시형인 8음 1구를 병치한 2구체는, 점점 더 복잡해 가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반절(배중)되어 4구체, 8구체로 발전해 간다. 한편, 4구체에서 8구체로 이행하는 도중에, 4구체에 그것과 분절되는 2구의 후절이 붙은 형태인 6구체가 존재하였고, 마찬가지로 8구체도 2구의 후절이 붙은 10구체로 발전해 간다. 이렇게 단절의 형태인 4구체, 8구체와, 후절을 가진 6구체, 10구체는 장가로도 발달해 나가는데, 전자는 가사로, 후자는 경기체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형식이 단조로우며 그 발달이 미약한데 반해, 전절과 분절되는 후절을 갖는 후자는 기교와 변화가 풍부해 6구체는 후세에 시조로 발달해 가고, 10구체는 고려의 「삼진작(정과정곡: 악학계법 수록가)」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 조운제가 「원시형」에서 구축한 조선 시가의 형식 발달사의 대강이었다. 이러한 체제 자체는 오구라의 요망에 응하는 형태의 성과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틀은 시가사의 체제로 재구성되어 『사강』에 그대로 편제되어 간다. 그런데, 그때 조운제가 새로이 강조한 것은 시가사의 주체로서 「조선민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었다. 실제로, 「원시형」에는 「조선민족」이라는 용어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비해, 『사강』에는 19예나 확인된다. 관련어구인 「국민(성)」(24예), 「민중(「중민」 1예)」(5예), 「민족(성)」(6예), 「민요」(25예) 따위도 빈출한다. 잔존한 시가를 일직선으로 잇는 것 못지않게 조선 시가사의 확립에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은 시가 발달을 이끄는 주체로서 「조선민족」을 현현시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후술하듯이, 조운제가 시가사 성립의 또 다른 요소로 들었던 상하 관통성, 즉 향유 층의 범 계급적 성격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조선민족」을 조선 시가사의 기술에 등장시키기 위해 조운제가 착수한 작업은 고유한

민족문화의 연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신라시대를 불교유입을 분기점으로 「朝鮮詩歌의 發生時代」와 「鄉歌時代」로 이분한다. 그리고 전자를 「朝鮮文化的 胎盤期로서, 아직 外來文化的 影響이 稀薄한 朝鮮味の 處女時代」(p.5)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를 잇는 「鄉歌時代」는 「外來文化가 洪水같이 밀려들어」왔지만, 이를 잘 消化하여 朝鮮의 文化가 한층 발전한 시대였지만, 고려, 조선에 이르러 支那文化에 壓倒되어 이러한 고유의 시가가 「充分히 發達하지 못」하고 「固有文化는 滅亡의 狀態」(p.6)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문화의 영향으로 조선의 고유문화가 쇠퇴일로로 걸어 왔다는 이러한 사적 인식은, 위의 다카하시론과 상통한다. 하지만, 조운제의 경우는 외래문화와 접촉하지 않았던 「朝鮮詩歌의 發生時代」를 상징하여, 조선민족의 고유한 시가의 발생을 상징하고, 이어지는 「鄉歌時代」를 외래문화를 잘 소화하여 조선의 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킨 시대로 파악한다²⁸⁾. 이러한 파악은 서양문학에 압도되어 조선의 시가적 전통이 단절되려하는 현실을 타개하는 데에 있어 좋은 전범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신라시대를 양분하여 파악하는 인식은 오구라에게서 선례를 찾을 수 있다.

신라시대의 가악은 2기로 나눌 수 있다. 즉 1기는 불교, 한학의 영향을 입는 일이 비교적 적은 시대, 2기는 불교, 한학의 영향이 있는 이후의 시대이다. 그리하여 전시대에 있어서는 오로지 조선고유의 가악이 행해지고, 후시대에 있어서는 지나계통의 음악이 행해짐과 동시에 조선 고유의 것도 병행되었음에 틀림없으나, 지나 승배의 열이 점차 왕성해짐에 따라, 고유한 것은 점차 그 음영을 감추어, 후세에 전해지는 것도 그 수가 극히 적음에 이르렀다.(p.26)

신라시대를 조선고유의 가악이 행해진 시대와 고유의 것과 중국의 음악이 병존한 시대로 나누고, 후세로 갈수록 중국의 음악이 성행하게 되어 고유의 것이 쇠퇴하게 되었다는 오구라의 시대파악의 인식 틀은 조운제의 시가사의 첫 부분의 기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구라의 견해 또한 그의 독창적인 발상은 아니었고, 당시 주류를 이룬 일본 국문학사가 국문학의 고유한 연원을 밝히기 위해 구축한 틀을 이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고의 문학은 [……] 우리나라 문명의 요람의 시대, 외국 영향이 그다지 들어오지 않은 시대에 발생한 문학입니다. [……] 외국의 영향이 적은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문

학의 원류, 근본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재미있는 점입니다.²⁹⁾

이 점만을 보더라도 조운제의 조선시가의 수립이 일본의 국문학사 내지는 와카사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의지는 마찬가지로, 향가와 시조의 작자 층의 상하 관통성, 즉 범 계급적 성격을 지적하는 부분에서도 투영되어 있다.

作者를 보면 僧侶가 있고 俗人이 있고 男子가 있고 女子가 있듯이 各階級을 통하여 있는것도 注意할바이거니와, 더욱이 村女 寺婢와 得烏谷과 같은 그다지 智識階級에 屬되지 못한 人物에까지 그만한 作品이 있다는 것은 新羅에 如何히 鄉歌가 普遍하였으며, 또 盛況하였든가를 말하여 주는듯 하다.(p.52)

여기에서 「寺婢」란, 「願往生歌(『삼국유사』 권5 「光德, 嚴莊」조 수록가)의 작자를 말하는데, 이 노래의 작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승려 「光德」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고, 「寺婢」라 하더라도 실은 관음보살의 권화(權化)이므로 이를 단순히 비지식계급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향가의 작자 층은 주로 승려나 화랑이고, 그렇지 않은 작자에 대해 그 계급을 특정 짓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조운제는 시조의 작자 층에 대해서도 시조발생기의 작자가 전부 중앙의 귀족층이라는 것을 「只수는 伝틀 몰하지마는 그 時代에 있어서는 平民階級中에서도 亦是 相當한 愛好者와 作家를 가졌을것이로대, 記述의 責任을 잡고 있는것이 特權階級の 사람이기 때문에, 後世에 伝할 수 없었을 따름이다」(p.122)라고 하여, 상상의 자료를 동원하여 설명하고 있다. 물론 시조에 관해서는 조선중기이후가 되면 점차 작자미상가를 상당수 포함한 장형화 된 시조(「사설시조」)가 유행하게 되고, 그 내용도 반유교적이고, 구체적 묘사가 눈에 띄는 등, 작자 층의 평민계층으로의 지향성이 추정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범위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이었고, 기존의 평시조와의 내용이나 형식의 이질성만을 들어 작자 층을 논하기에는 설득력이 적고, 사대부 층의 양면성의 표출로 파악하는 설도 성립하기 때문에³⁰⁾, 시조의 서민문학으로의 지향성에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이론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운제가 향가와 시조를 일직선으로 연결하고 계급의 대립을 초월한 시가의 향수를 강조한 것은 조선

의 시가사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모든 階級이 다같이 부른 형식」으로 파악된 「창가」나 「신시」를 이을 장래의 조선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유한 국민시가적인 전통에 입각해서 성립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한데, 이것 또한 근대이후에 성립한 일본의 국민시가로서의 와카사의 응용이기도 하다. 서양의 국민시에 촉발된 명치의 지식인들은 공식적으로 국민시가의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와카성립 초기의 와카집인 『만엽집(萬葉集)』에 서민으로 보이는 작자의 작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와카의 향수 층의 범 계급적 성격으로 부각, 미화해 간다. 그리고 「민요」 개념의 성립이후, 이들 와카는 고대의 민요로 발굴되고, 국민의 시가가 좀처럼 성립을 보지 못 하는 속에서, 그 열망이 과거로 투영되어 『만엽집』은 민족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고대의 찬란한 국민가집(national anthology)으로 추앙되기에 이른다³¹⁾.(주(25)의 사사키의 담론 참조) 국민가집은 범계급적 가집인 이상으로 민족적 가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운제가 국민시가로써 절대가치를 두었던 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홀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여겨진 시조였다³²⁾. 그는 그 이유를 시조가 「조선민족의 국민성」에 가장 적합한 시형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논한다.

時調가 成立되기까지의 모든 詩形은 畢竟 時調形式을 이루라는 準備에 지나지 못하였고, 成立된 後의 모든 詩形은 時調의 發展의 形式이라 볼수 있을만치 時調의 成立은 詩歌上 重要한 事實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詩歌上地位는 普通것과도 다르다. 實로 時調는 朝鮮詩歌의 代表라 하겠고, 또 過去 朝鮮民族의 象徴이 될것이다.

그런데, 시조의 영속성의 원인을 조선민족의 국민성에 뿌리를 내린 시형에서 찾는 조운제의 이론에 입각해서 보면, 시조의 시형을, 민요 내지 동요에서 출발한 4구체 향가의 발전적인 형태인 6구체를 계승한 것으로 보는 행론은 다소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 이대로 라면 국민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된 6구체향가가 현존하지 않고, 오히려 시가 발생론 상으로는 전 단계에 해당하는 4구체가 남아 있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조운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백제의 노래라고 하는 「정읍사」를 6구체가의 실례로 들고, 6구체 자체도 「깜안 옛날」부터 「神歌중에서 或은 民謠中에서 그것이 後世에 時調의 形式이 되리라는 意識도 없이 漠然히 쓰여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리하여 「朝鮮民族의 象徴」인 시조의 원형이라고 할 6구체가도 민요의 일부로 파악된 것이다. 조운제에게

있어서 민요의 주체란 조선민족으로 여겨졌다는 것은 명백하다. 조선민족은 계급에 관계 없이 민요에 연원을 두는 시조를 장구한 과거로부터 계속 불러왔다는 것이다.

5. 결론과 과제를 전망하며

이상의 고찰은 식민지 하에 행해져서 『사강』으로 결정(結晶)된 조운제의 시가사 연구에 대한 종래의 평가에 대해 다소의 수정을 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조운제는 해방이후 집필된 글에서 1930년대 말부터 자신의 실증주의적 연구태도에 회의를 느끼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민족사관의 창출에 부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이 회고문을 받아 『사강』을 실증주의적 학풍에 입각한 결과물로 보고 거기에 민족사관의 투영을 부정해 왔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강』은 조선민족의 고유한 시가사의 확립이라는 뚜렷한 목표 하에 쓰여 졌다는 것은 명백하며, 그것은 일본의 와카사에 대응하는 것이기조차 했다. 이러한 『사강』의 민족주의적 특성은 최근의 연구에서 인정되는 바이기도 하다³³⁾. 그렇다면, 왜 조운제는 해방 이후의 그의 민족사관에 입각한 국문학 관련 저서에 많은 부분이 계승되어 간 이 작업을 부정적으로 회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문제가 된다.

그것은 해방 이후의 그의 국문학 관련서가 계승하지 않은 부분을 살피는 것으로 가능된다. 즉 조운제가 『사강』의 기술에서 면밀히 제거한 것은 국문학 미발달에 대한 열등의식과 관련한 담론들이었다. 실증주의를 취하는 한 피할 수 없는 미발달의 흔적은 고유한 민족문학의 발달사로서의 국문학 성립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운제가 철회한 것은 문헌중심주의에 입각한 문학사의 기술이었고, 문헌의 부재를 메우는 것이 민족사관이라는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조운제는 기존의 자설을 대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의 국문학사관의 확립을 견인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해방이후의 한국의 국문학계에 있어서의 구비문학 연구의 유래 없는 활황을 배태한 첫 계기가 된 것이다. 구비문학에는 고래의 민족혼이 맥박치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注】

- 1) 「朝鮮文學의 概念」(『李光洙全集』 16, 삼중당, 1963년 1월, 초출 「新生」 2-1, 1929년 1월)
- 2) 예를 들면, 이 광수는 「文學에 뜻을 두는 이에게」(『李光洙全集』 16, 초출 「開關」 21, 1922년 3월)에서, 조선에는 문학연구에 뜻을 둔 文士들이 입문서로 참고 할만 한 문학과 문학사가 없기 때문에, 서양인과 일본인이 쓴 문학개론과 영문학사, 불문학사, 일문학사 등을 읽도록 권장하고 있다.
- 3) E. 홉즈보움, T. 렌저 편 『만들어진 전통(創られた伝統)』(마에가와 케이지(前川啓治) 타역, 키노 쿠니아(紀伊國屋)서점, 1992년), 아울러 홉즈보움 등의 작업에 촉발되어 일본문학연구자들에 의해 성립한 논저인 하루오 시라네, 스즈키 토미(鈴木登美) 편 『창조된 고전(創造された古典)』(신요사, 1999년)등.
- 4) 양 주동 「향가의 독해, 특히 원왕생가에 대해(郷歌の讀解、特に願往生歌に就いて)」(「靑丘學叢」 19, 1935년 2월)
- 5) 오구라 심페이 「향가, 이두의 문제에 대해(郷歌・吏讀の問題を繞りて)」(「史學雜誌」 47-5, 1936년 5월)
- 6) 오구라 주(5) 논문
- 7) 「나와 國文學과學位」(『陶南雜識』 乙酉文化社, 1964년 4월, 초출 「新生公論」 2-3, 1952년 8월)
- 8) 본 논쟁에 관해서는, 야스다 토시아키(安田敏朗) 『「언어」의 구축—오구라심페이와 식민지 조선—(「言語」の構築—小倉進平と植民地朝鮮—)』(삼원사(三元社), 1999년 1월)에 개괄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p.151), 구체적으로 논한 것에, 류 준필(柳浚弼) 「土田杏村・小倉進平의 郷歌形式論爭과 趙潤濟의 詩歌形式論」(『韓國學報』 97, 1999년 12월)이 있다.
- 9) 츠치다는 자설의 곳곳에 「나는 조선어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다」 「나는 조선어에 관해서 아무 지식도 갖고 있지 않다」 등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오구라 자신도 조선어에 대한 지식을 결여한 츠치다의 행론에 대해 「조금이라도 조선어를 맛 본 사람이라면, 그런 사소한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츠치다)씨가 조선어의 성질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관계 상, 거의 신용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따위의 비판을 행한다.
- 10) 오구라 심페이 「향가의 형식에 대해 츠치다 료오손씨에게 답함(郷歌の形式に就き土田杏村氏に答ふ)」(「국어국문의 연구(國語國文の研究)」 44, 1930년 5월) p.6참조.
- 11) 「朝鮮歷史通俗講話開題」(「東明」 6, 1922년 10월)에서, 「日本人の朝鮮古蹟考古事業은 아마世界의人類에게永遠한感謝를바들일인지도모르고, 또우리들도다른이름에끼어서 남만한感謝를주는 것이當然한일이지만, 제가할일을남이한 [……] 이붓그림이언제까지든지살아지지아니할것임을 생각하면感謝하리란勇氣조차나오지를못할것이다. 우리가이제民族的一大覺醒을가진것은事實이다. 그러나그覺醒은이즉—混沌이다. [……] 精神부터獨立할것이다. 思想으로獨立할것이다. 學術에獨立할것이다. 특별히 自己를護持하는精神、自己를發揮하는思想、自己를究明하는學術의上으로 絶對한自主・完全한獨立을實現할것이다. 朝鮮人の손으로 「朝鮮學」을 세울것이다.」라고 하여, 이제까지 일본인의 손에 맡겨진 조선연구를 조선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학적 체계를 세워야 하며, 그것은 중주국으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을 실현하는 길이라 했다. 이러한 기운은 제1차 세계대전이후의 민족자결주의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3·1독립운동을 통해 고조된 민족적 주체성의 자각과 함께 확산되어, 30년대 이후에 「조선학」 아카데미즘으로 체계화해 갔다. 강해수(姜海守) 「『조선학』의 성립(『朝鮮學』の成立)」(「에도의 사상(江戸の思想)」 7, 페리칸사(ペリカン社), 1997년 11월), 츠루노노 유타카(鶴園裕) 「근대 조선에서의 국학의 형성—『조선학』을 중심으로—(近代朝鮮における國學の形成—「朝鮮學」を中心に—)」(「조선사연구회 논문집(朝鮮史研究會論文集)」 35, 1997년 10월)참조.

- 12) 「震檀學報」1, 1934년 11월
- 13) 「식민지 『조선』에서의 『국문학사』 성립-조운제의 『문학사』 서술을 중심으로-(植民地 『朝鮮』における『國文學史』の成立-趙潤濟の『文學史』敘述を中心にして-)(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 와타나베 코오조오(渡辺公三) 편 『세기전환기의 국제질서와 국민국가의 형성(世紀轉換期の國際秩序と國民國家の形成)』 카시와(柏)서방, 1999년 2월)
- 14) 이러한 근대의 획기적 전환에 대해서는, 조운제도 『史綱』 「自序」에서 「近代라하면 文化的水準의 全然 뒤바뀌어 文學의 革命이 일어나고 同時に 自國文學을 絶叫한 時代」로 묘사하고 있다.
- 1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시나다 요시카즈(品田悦一) 『만엽집의 발명-국민국가와 문화장치의 고전-(万葉集の發明 國民國家と文化装置としての古典)』(신요사(新曜社), 2001년 2월)을 참조 바람.
- 16) 「일본문학의 과거 및 미래(日本文學の過去及び將來)」(『제국문학(帝國文學)』1-1~3, 1895년 1~3월)
- 17) 시나다 요시카즈 「〈민요〉의 발명-명치후기의 국민문학운동에 입각해서-(〈民謠〉の發明-明治後期における國民文學運動にそくて-)(『만엽집연구(万葉集研究)』21, 하나와(塙)서방, 1997년 3월)
- 18) 미카미 산지, 타카즈 스키사부로오 『일본문학사(日本文學史)』(금항당(金港堂), 1890년 10월)
- 19) 조운제는 1919년 4월부터 1924년 3월까지 대구고등보통학교에 재학했으며, 타카하시는 1916년부터 1921년까지 동 학교 교장으로 부임해 있었다.
- 20) 타카하시 토오루 「조선문학연구-조선의 소설-(朝鮮文學研究-朝鮮の小説-)(『일본문학강좌(日本文學講座)』12, 신조사(新潮社), 1927년 11월)
- 21) 코마고메 타케시(駒込武)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이와나미(岩波)서점, 1996년 3월)
- 22) 조선 소설을 10항의 범주로 분류한 타카하시의 분류안에 새로운 범주를 첨가(타카하시가 무시했던 『金鰲新話』에 주목하여 「향락소설」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거나, 상위 범주 하에 하위 범주를 종속시키는 등, 좀더 체계를 세운 것이 조운제의 분류안이라 할 수 있다. 단, 타카하시가 조선의 사대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들었던 명에 은혜를 갚기 위해 청을 격파한 영웅담이라는 범주는 조운제의 그것에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조운제가 조선의 소설을 연구하게 된 동기로, 오구라를 비롯한 일본인 학자들의 시기연구에 대한 편중에 대항하기 위해 소설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는 김윤식의 주장(『한국 근대문학 사상 연구1-陶南과 崔載瑞-』 일지사, 1984년 9월)은, 일본인 학자들의 조선의 시가에 대한 높은 관심을 조운제에게 자각시켰던 계기가 되었던 오구라의 논문이나 그로 인한 츠치다 료오손과의 논쟁이 조운제의 졸업논문 제출 후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의 소설에 대한 관심이 타카하시의 연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억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23) 安田 주(8)인용서
- 24) 小倉進平 「學生은 謙虛하라-人格修養에힘을쓸것」(『毎日新報』1940년 1월 11일)
- 25) 하가 아이치(芳賀矢一) 「일본운문의 형태에 대해(日本韻文の形體に就きて)」(『철학잡지(哲學雜誌)』65, 1892년 6월)
- 26) 하가 아이치(芳賀矢一) 『국문학사 십강(國文學史十講)』(부산방(富山房), 1899년 12월)
- 27) 사사키 노부즈나(佐佐木信綱) 『와카사의 연구(和歌史の研究)』(대일본학술협회, 1915년)
- 28) 그런데, 민족사관을 이론적 기초로서 뚜렷이 내걸고 저술된 국문학사에서는 사강과는 달리 국문학사는 국문학이 한문학과 투쟁을 통해 갈수록 한문학을 압도하여 가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 29) 하가 아이치 주(25)인용서
- 30) 장사훈 「고려가요와 음악」(『고려가요연구』 새문사, 1982년), 김학성 『국문학의 탐구』(성균관대학

교출판부, 1987년)등.

- 31) 시나다 주(15)인용서.
- 32) 최근, 조관자 「중일전쟁기의 『조선학』과 『고전부흥』－식민지의 『지』를 묻다－(日中戰爭期の『朝鮮學』と『古典復興』－植民地の『知』を問う－)」(「사상(思想)」이와나미서점, 2003년 3월)가 시조부흥운동이 일본의 국민문학으로서의 와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의 시조를 정립하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 33) 류준필 「形成期 國文學研究의 展開樣相과 特性－趙潤濟·金台俊·李秉岐를 中心으로－」(서울대학교 大學院 文學博士 學位論文, 1998년 8월)

植民地下の〈朝鮮詩歌史〉の形成

임경화

本稿では、韓國の「國文學」アカデミズムの基礎を築いた趙潤濟により著された韓國最初の詩歌史である『朝鮮詩歌史綱』を手掛りに、植民地下の朝鮮における詩歌史成立の意義を問い直したものである。それは簡単にいうと、宗主國日本のアカデミズムによって朝鮮の「自國文學」に与えられた否定的な評価（「停滞」乃至「劣等」）の克服にあったといえる。具体的には、日本の國文學の精髓とされた和歌史に對應するものとしての、朝鮮の民族魂が時代貫通的に脈打つ詩歌史の構築に集約された。しかし、そのスティグマからの眞の離脱は解放後を待た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それは朝鮮の國文學の未發達の根據として働いた文獻中心主義を民族史觀というイデオロギーに切り替えることで可能になったが、そのことによって韓國の國文學界に齎されたのは口承文學研究の活況であった。